



■ 마스터스 골프대회 내일 개막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3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GC에서 열린 2007 마스터스 골프 연습라운드 7번홀에서 구름처럼 물린 갤러리들을 사이에 두고 티샷을 한 뒤 공을 바라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우즈 “빼앗긴 그린 재킷 되찾겠다”

‘타이거와 필의 대결’이 화두가 된 제71회 마스터스골프대회가 5일(한국시간) 오후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파72·7천445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미국의 프로골프(PGA) 투어가 해마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로 치르는 마스터스는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작년까지 9년은 달라진 코스가 ‘주제’였다. 그러나 작년 우승 스코어가 4라운드 합계 7언더파로 떨어지자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은 더 이상 코스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대회에 대한 관심이 비로소 ‘코스’에서 ‘선수’로 돌아온 셈이다.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선수는 일반적인 투어 대회보다 훨씬 적은 97명.

세계랭킹 50위 이내 선수 등 까다로운 자격을 갖춰야 나올 수 있다. ‘마스터스’는 익히 알려진 대로 ‘명장(名匠)’ 반열에 오른 최정승급 선수들만 출전한다는 뜻이다. 출전선수 가운데 관심의 초점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열혈남아’ 필 미켈슨(미국)에게 모아진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마스터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린재킷은 2003년 마이크 웨어(캐나다)를 빼고 모두 우즈와 미켈슨이 번갈아 입었다. 2004년부터 작년까지 3년은 돌이 그린재킷을 주고 받았다. 마스터스대회가 ‘타이거와 필의 대결’이 된 사연이다. 1997년, 2001년, 2002년, 그리고 2005년 등 벌써 네 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우즈는 작

년에 미켈슨에게 내준 그린재킷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우즈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난생 처음 현지 시간 일요일에도 연습 라운드를 도는 등 타이틀 탈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타이틀 수성에 나선 미켈슨도 이제는 ‘마스터스의 사나이’로 불려도 손색없는 실적을 쌓았다. 13차례 출전해 열번이나 ‘톱 10’에 오른 미켈슨은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 우승을 거둬 오거스타내셔널에 대한 자신감은 우즈를 앞선다. 연습 라운드에서는 16번홀(파3)에서 홀인원의 행운까지 누리 한껏 기분이 고조되어 있다. 하지만 우승 후보가 우즈와 미켈슨만은 아니다. 스포츠 도박사들은 우승 가능성 1.2

위에 주저없이 우즈와 미켈슨을 올려 놓았지만 어니 엘스(남아공), 비제이 싱(피지), 레티프 구센(남아공) 등 이른바 ‘빅 5’ 회원들을 차례로 우승 후보로 꼽았다. 젊고 패기 넘치는 20대 선수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조프 오길비(호주), 헨릭 스텐슨(스웨덴),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찰스 하월3세(미국), 폴 케이시(잉글랜드), 루크 도널드(잉글랜드), 애덤 스콧(호주) 등은 ‘빅 5’ 못지 않은 실력을 지닌 신진 세력들이다. ‘한국인 첫 메이저대회 우승자는 마스터스에서 나올 것’이라며 은근히 우승의 꿈을 키워온 최경주(37·나이키골프)도 ‘복병’이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마스터스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는 최경주는 러프가 상대적으로 짧은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2004년에는 미켈슨, 그리고 엘스에 이어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호랑이 사냥꾼’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도 주목받는 출전자 가운데 한 명이다. 양용은은 정승급 선수 못지않은 잠재력을 지닌데다 빠른 그린에서 퍼팅을 잘 하는 편이라 기대 이상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시즌 첫승 목마름



광주, 오늘 오후 7시 수원경기

특유의 투지 앞세워 1승 기대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총력의 연패를 당한 ‘레알’ 수원 삼성을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정규리그에서 광주 상무에 발목을 잡혀 연속 행진을 멈춘 ‘귀네슈호’ FC 서울은 창원 원정 길에 올라 컵 대회 3연승을 노린다. 광주 상무는 4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컵 2007 3라운드를 벌인다. 광주 상무는 지난 주말 올 시즌 5경기 전승으로 무서운 상승세를 질주하던 FC서울을 상대로 K-리그 첫 승점(1점)을 따낸 저력을 이어간다는 각오다. 광주는 수비 집중력과 강한 압박, 몸을 아끼지 않는 투지 넘친 플레이로 박주영과 정조국, 기성용 등 최정에 멤버를 모두 투입한 서울의 파상공세를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수원의 하향세도 광주에겐 희소식이다. 수원은 지난 달 21일과 지난 1일 수도권 라이벌 서울과 성남 일화에 각각 1-4, 1-3으로 참패하는 등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게다가 수원 차범근호의 중앙 수비진이 부상 병동이라는 점도 광주의 승부욕을 자극하고 있다. 수원은 최근 두 경기에게 7실점을 기록중이다. 광주는 남궁도, 이길훈, 남익경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미드필드진엔 전광진과, 강용, 이동식, 구경현 등을 포진 시킬 계획이다. 수비는 한태우, 김윤구, 이윤섭 등이 맡는다. 서울은 주말 광주전에서 유효 슈팅이 단 두 개에 그칠 만큼 귀네슈시 공격 축구가 갑자기 실종된 게 문제점. 컵대회에선 2전 전승에 9득점, 1실점의 화력을 뽐낸 서울이 세 번째 득점소를 펼칠 지 지켜볼 일이다. 역시 박주영, 정조국이 중책을 맡는다. /박진표기자 lucky@

17세 고교생 황제경 3언더파 우승

함평다이너스티서 열린 SBS골프 투어 1차대회

17세 고교생 황제경(김포 양곡고)이 올해 창설된 ‘SBS골프 캐리웨이투어 1차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인 황제경은 3일 함평다이너스티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이른바 72타를 쳐 합계 3언더파 141타로 김형민을 4타차로 제치고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올해 처음 신설된 캐리웨이투어는 대회 출전 기회가 거의 없는 세미 프로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간 12개 대회를 치러 상금 랭킹 1, 2위 선수에게 미국무대에 도전할 기회를 준다. 2차대회는 오는 9~10일까지 2일간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1차대회를 통과한 40여 명이 기량을 겨루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블래터 FIFA 회장 3선 성공

제프 블래터(71·스위스)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다음 달 31일(이하 한국시간)로 예정된 FIFA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사실상 3선에 성공했다. FIFA 홈페이지는 3일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한까지 블래터 현 회장 외에는 출마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블래터는 이로써 2011년까지 FIFA를 이끌게 됐다. 그는 “변함없이 신임해준 각국 축구협회에 감사 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블래터는 “향후 4년 임기에는 축구라는 경기가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힘을 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출신으로 로잔 대학을 나와 아마추어 축구 선수를 한 블래터는 1975년 기술 감독관으로 FIFA에 들어온 뒤 주안 아벨란제 전 회장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고, 1998년 레나르트 요한손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을 누르고 FIFA 회장직에 올랐다. 블래터는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를 앞두고 카메룬 출신의 이사 하야투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중·일 프로축구 왕중왕전 6월 중국서 개최

한국과 중국, 일본 프로축구 왕중왕을 가릴 2007 A3 챔피언스컵대회가 6월 7-13일 까지 중국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산둥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한중일 3국은 김일동 K-리그 사무총장과 사사키 가즈키 일본프로축구(J리그) 사무총장, 난용 중국축구협회 부회장, 량샤오닝 중국프로축구(슈퍼리그)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후 베이징 쿤토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A3대회에는 지난해 K-리그 우승팀 성남 일화, J-리그 우승팀 우라와 레드삭을 비롯해 중국 C-리그와 FA컵을 석권한 산둥 루닝 및 리그 준우승팀 상하이 선화가 출전한다. 중국은 개최국 자격으로 두 팀이 나서게 되며 우승 상금은 40만 달러다. 2003년 1회 대회에서는 가시마 앤틀러스가 우승했고 2004년 2회 때는 성남 일화가, 2005년 3회 대회는 수원 삼성이, 2006년 4회 대회에서는 울산 현대가 패권을 차지했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